

## 배경 스토리

이노테크 인터스트리는 에너지 무기와 스켈 슈트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들을 제조하여 키클롭스 군부에 조달하는 군수기업이다.

이곳의 CEO는 막강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막강한 에너지 병기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그가 구상하고 있던 병기는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갖고 있었고 키클롭스 정부는 해당 병기제작에 대한 계획을 거부했고, 이노테크는 무기 설계의 중요한 동력원인 그래비티 코어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케프리아의 회장은 키클롭스의 그래비티 코어를 확보하기 위해 반란을 계획하게 되고 이를 위해 적국인 케프리아와 비밀리에 내통하여 반란을 위한 기술력을 제공받게 되고 반란을 위한 자신의 사병들을 점점 키워나가게 된다.

## 챕터 1 스토리

키클롭스의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기업인 이노테크에서 케프리아와 비정상적으로 수많은 거래가 있었다는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이노테크의 생산된 물자가 회계장부와 다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우리스의 첩보원들을 이노테크로 파견하였고 이곳에서 특별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정확한 정보의 확인과 실종된 요원을 구출하기 위해 물자의 최종 도착지였던 이노테크 산하의 생산 공장 부지로 R스쿼드가 파견되게 된다.

## 챕터 2 스토리

요원을 성공적으로 구출하고 생산공장 부지에서 발견된 문서를 아우리스 측에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노테크에서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는 아머드 슈트의 존재와 이를 케프리아에 수출하기 위해서 해당 병기를 대량으로 모아놓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R스쿼드는 케프리아에 넘어가기 전 아머드 슈트를 확보하거나 파괴해야 하는 작전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

R스쿼드가 작전을 진행하는 와중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노테크에 파견된 아우리스의 요원들은 이노테크의 행적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케프리아와 관련된 이노테크의 자금줄을 끊고 그래비티코어의 공급을 중단한다.

창고 파괴를 완료한 R스쿼드는 오퍼레이터의 긴급한 보고를 받게 된다.

## 챕터 3 스토리

R스쿼드는 이노테크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사병들이 키클롭스의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

보고를 받은 R스쿼드는 진격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보한 반란군 세력들을 저지하게 된다.

진격을 저지하는 동안 이노테크의 병력을 막기 위한 정규군들이 소집될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고 반란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게 된다.

병력을 막은 R스쿼드는 이어서 이노테크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게 된다.

## 챕터 4 스토리

이노테크의 본사는 병력을 파견하느라 이노테크의 본사엔 소수의 병력만이 존재한다는 오퍼레이터의 보고를 받고 R스쿼드는 이 기세를 몰아 이노테크의 본사로 진격하게 된다.

R스쿼드는 군사기지화 된 이노테크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와중 케프리아로 부터 비밀리에 지원받은 병력들(개조병력)을 마주하게 되고 이들을 상대해 나간다.

이노테크와 케프리아의 병력들을 모두 소탕하는 시점에서 과거 R스쿼드의 상관이었던 드레드 교관과 마주하게 된다.

케프리아의 약물로 신체력을 증강시킨 드레드 교관은 이노테크 기술의 결정체인 아머드 슈트를 장비하고 이들을 상대하게 된다.